[에너지전환 청년 프런티어 2기] -청년이 그린 Green New Deal(1)

에너지전환프런티어

2021/01/19 13:18 http://blog.naver.com/tsje1019/222212397543

#에너지전환청년프런티어2기 #그린뉴딜 #기후위기 #청년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전환포럼에서 진행하는 에너지전환 청년 프런티어 2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달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진행이 되고,

현재는 막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만 마친 상황입니다.

우선 전반적인 일정을 보고, 일주일동안 진행되었던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 2월				
1/11 (월)	1/12 (화)	1/13 (수)	1/14 (목)	1/15 (금)
역량강화 프로그램				
1/18 (월)	1/19 (화)	1/20 (수)	1/21 (목)	1/22 (금)
역량강화 프로그램		솔루션 구체화, 팀별 현장답사 계획 준비 및 발표		
1/25 (월)	1/26 (화)	1/27 (수)	1/28 (목)	1/29 (금)
솔루션 구체화, 팀별 현장답사 계획 준비 및 발표		팀별 현장답사 기간		
2/1 (월)	2/2 (화)	2/3 (수)	2/4 (목)	2/5 (금)
팀별 현장답사 기간				
2/8 (월)	2/9 (화)	2/10 (수)	2/11 (목)	2/12 (금)
	현장답사 공유모임		설 연휴	
2/15 (월)	2/16 (화)	2/17 (수)	2/18 (목)	2/19 (금)
	발표 및 수료식			

전체 일정은 다음과 같이 매우매우매우 타이트하게 진행되는데요
이 활동의 목적이 2050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 솔루션까지 제한해야 하다보니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해됩니다.

한달동안 기후위기, 에너지전환에 대해 그리고 문제정의 방법론 등을 배우고, 에너지 전환의 현장에 직접 방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며 직접 에너지전환 현장 솔루션을 도출해야 한답니다.
막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끝난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됩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

그동안 진행되었던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려 하는데요

우선 가장 메인이 되는 전문가분들의 강의소개가 있겠습니다!

1/12 (화)	1강	13:00–14:30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2050년 탄소중립과 해결과제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2강	14:30–16:00	한국의 탄소중립 비전, 과제와 수단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1/13 (수)	3강	16:00–17:15	EU 그린 딜, 탄소중립 사회로의 도전	Alex Mason, Senior Policy Officer, Climate & Energy, WWF Europe
	4강	17:15–18:30	독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전략	Timon Wehnert, Vice Head Berlin Office, Wupertal Institute for Climate, Environment, Energy
1/14 (목)	5강	14:30–16:00	그린뉴딜과 전력산업의 새로운 방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강	16:00–17:30	기후위기의 도전과 과학기술 혁신	윤재호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1/15 (금)	7강	13:00–14:3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디지털기술과 에너지효율 혁신	박창민 그리드위즈 전무
1/18 (월)	8강	13:00–14:30	지역의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	박진희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교수
	9강	14:30–16:00	그린스완 시대의 그린뉴딜, 금융의 역할	은기환 한화자산운용 펀드매니저
1/19 (화)	10강	16:00–17:15	덴마크의 에너지전환, 성공과 과제	Peter Markussen, Head of flexibility and ancillary services, Energinet
	11강	17:15–18:30	EU의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혁신	Andrew Ho, Lead Advisor, Regulatory Affairs, Orsted

이렇듯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강의에 참여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제목을 보니 들었던 강의의 내용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기말고사 기간에 자소서를 쓰고, 줌으로 면접까지 보고 합격하여 이렇게 활동에 참여한지 벌써 일주일이 넘게 흘렀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저의 방학은 가지만,,,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전이라는 점에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힘들지만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지원서를 쓰고 면접을 볼 때의 그 열정을 까먹지 말고, 앞으로의 활동에 임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고 더 자세한 내용은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D~`~

[에너지전환 청년 프런티어 2기] -청년이 그린 Green New Deal(2)

에너지전환프런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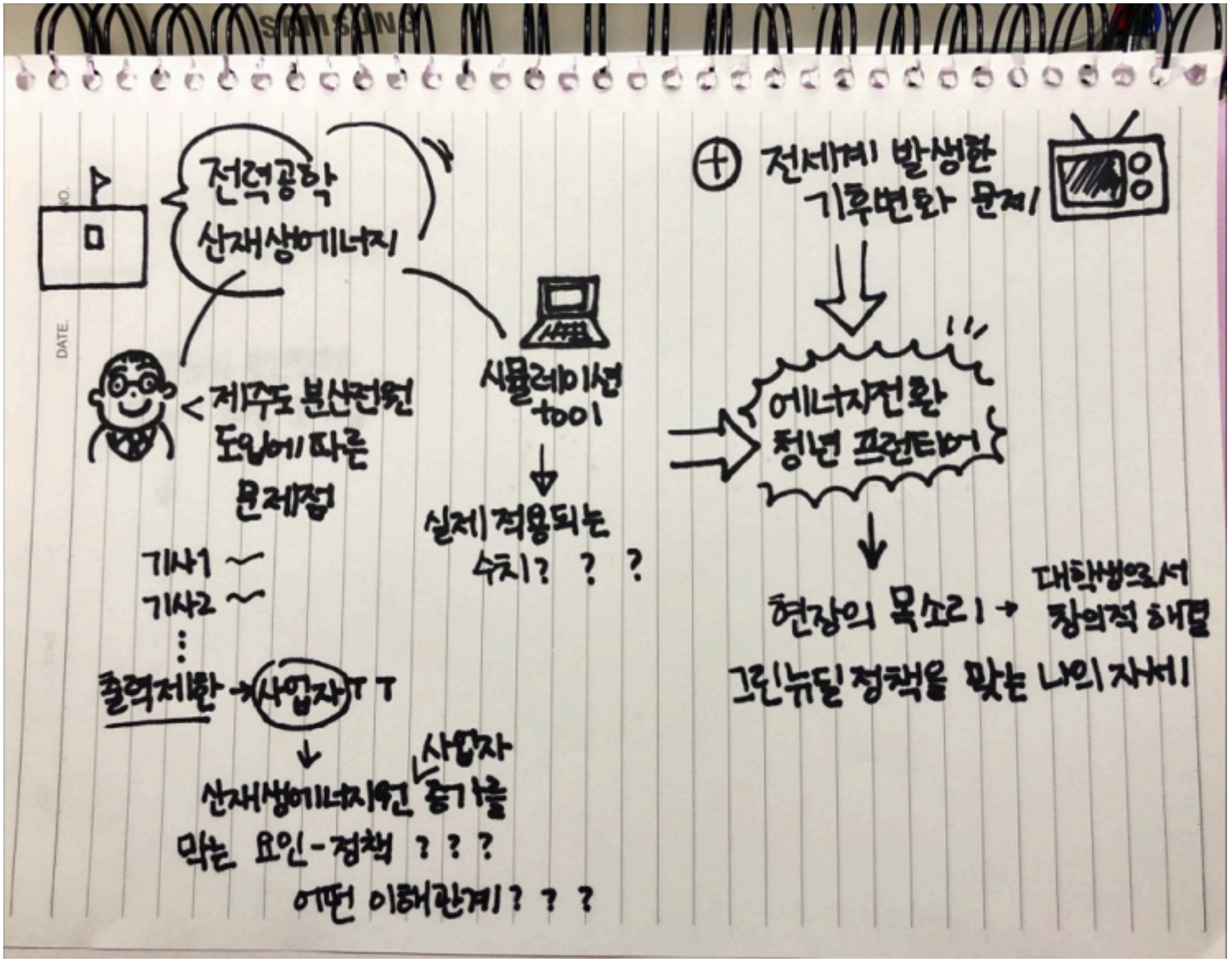
2021/01/19 13:27 http://blog.naver.com/tsje1019/222212406672

#에너지전환포럼 #그린뉴딜 #기후위기 #청년

지난 번 소개해드린 전문가분들의 강의 외에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매일매일 느꼈던 개인적인 저의 생각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창피하지만^..^)

첫째날, 발대식,OT, 아이스브레이킹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활동이 줌으로 이루어져서 과연 가능할까 생각했지만 열심히 활동을 준비해주신 기획단분들 덕분에 큰 차질없이 진행되었고, 충분히 의미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마주보고 진행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ㅠㅠ
다음으로는 그 날 생생하게 담았던 저의 생각입니다!
발대식에서 에너지전환 청년 프런티어 활동에 대해 내가 단순히 지식을 얻어가고 체험한다는 의미가 아닌 앞으로 다가올 '우리 세대'에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 시작한 에너지 전환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다시한번 깨달았던 것 같다. 뭐 직접적인 솔루션의 도출이라는 거창한 목표에 치중되었다기 보다는 정말로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이 활동의 진또배기라고 한다. 왜냐면 솔루션 도출이라는 타이틀에 얽매이면 솔루션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돌진하는 경주마가 되어 실제 현장에서 예상과 다른 부분이 나올경우 큰 패닉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 문제를 정의해나가면 자연스레 솔루션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과연 그럴지 궁금하다. 여기서 나는 계획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딱 짜서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활동에서는 예상과 다르게 빗나가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실제 기업에서 하게 될 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에 좋은 경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발대식에서는 선서도 했으니 이제 빠져나갈 구멍도 없다.

둘째날, 강의와 더불어 프런티어 활동설계 시간이 있었습니다.
프런티어 활동설계를 통해 내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고, 출력제한을 주제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나가고 나만의 원인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의 사진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풀어보자면 수업시간 중 제주도에 재생에너지원이 도입되며 발생중인 문제점에 대해 알았고, 출력제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원 사업자 증가를 막는다고 생각하여 이에 필요한 정책/제도는 무엇인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음과 같이 생각으로 꼬리잡기를 했답니다!

문제의식은 있지만 정확하게 누구를 위해/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현재의 제도, 규칙...

등에 대해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비슷하지만 ^;^)

이 활동 후에 들었던 강의에 대한 그 당시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를 통해 일부 해결한 문제로는 전력계통 확충에 있어 정부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대답이었다.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기는 상품이기에 결국 소비하는 사람이 그 부담을 져야하고, 이는 발전사업자와 계

통운영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답을 주셨다. 국가의 부담이 아닌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건축, 수송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력산업의 구조가 석탄화력에서 재생에너지로 변화해야 한다는데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정부의 사고는 잘못된 것이 아닐까 아쉬운 생각이 자꾸 들었다. 따져보면 산업 부분에서도 결국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뭐 탄소배출을 줄여 세계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선박부분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있는데 왜 정작 가장 중요하다는 전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는 것이 가장 큰 의문점이었다. 같은 논리라면 기업들이 탄소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비용은 기업과 소비자가 져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공기업이라는 점이 포인트겠지만 결국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물론 조사를 더 해봐야 알 것 같다.

이렇게 첫째, 둘째날 시간에 대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전환 청년 프런티어 2기] -청년이 그린 Green New Deal(3)

에너지전환프런티어

2021/01/19 14:09 http://blog.naver.com/tsje1019/222212447910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청년 #그린뉴딜

이어서
셋째날, 1기단원과의 토크콘서트, EU강의가 있었습니다.
토크콘서트에서 지난 1기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후기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답사, 인터뷰하기까지 과정을 생생하게 들었는데 기획부터 어떻게 인터뷰 판을 짜 나갈 것이며
섭외까지 1주일 동안 계획, 답사, 후 인터뷰 정리, 결론도출까지 가능할까 두려웠던것 같습니다. (지금도 무섭습니다 ㅜㅜ)
한편으로 이 활동이 끝나면 정말 후련하고, 그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겠구나 다시 한 번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활동에 진심으로 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싶었고, 모든 단계를 밟은 1기가 부러웠답니다 ㅎㅎ

그리고 EU강의를 들었는데 동시통역으로 이루어진 강의는 처음 들어봐서 정말 신기한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ㅋㅋㅋㅋ
가장 인상깊은 부분은 바이오매스 산업 등 유럽 스스로의 정책에 대해 논란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내부에서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에너지전환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같이 정치적 요소로서 에너지 전환을 다루는 (핵 폐기나 정책에 따른 선동질??)것과는 다른 점이고, 배워야할 점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또한 독일이 인상깊었는데 본인들이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고, 심지어 더 목표치를 높여버리겠다고 소리내는 입장에서 동시에 실제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홍보를 잘 해서라는 답변은 굉장히 신선했는데요 18년도까지 CO2배출이 실제로 줄지 않았으며 아직 자동차 산업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등
본인의 나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 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도 연방제, EU 전력망, 시민의식, 각종 정책 등으로 독일이 기후 제로를 위해, EU의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임이 보였던 것 같아 멋졌습니다!

넷째날, 본격적인 팀을 나눈 현장답사 준비, 전력산업과 관련된 강의 2개가 있었습니다.

우선 강의에 대해 제가 전력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중점을 두고 참여하고 있어서 질문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깊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에 뛰어들기 시작한 이유도 앞으로 분산전원 투입에 따른 기존 소비자 이탈+정부의 압력으로 연료비 조차 회수 못하지+분산전원 투입에 따른 계통 확대에 대한 투자금 회수…이런 문제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전력시장의 구조부터 변화시켜가며 이제는 전기를 공공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서 무조건 싼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야 하는 인식의 변화/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생각해보면 누가 전기요금 올린다고 하는 정치인을 좋아할 것이겠는가 싶다.

그리고 현재 DR사업이 진행되지만 확대되거나 발전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예비율, 즉 공급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시장의 자발적인 수요반응을 유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셨다.즉 수요반응이 효율적/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요/공급이 타이트해야 한다고 하셨다.

계통망 부족에 대한 견해로 계통 설비를 증설하는 것이 맞는가 (우선 당장은 늘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ESS나 P2G등의 기술적인 해결방안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놓고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일 기술적인 부분에서 효율성이 더 높다면 계통설비가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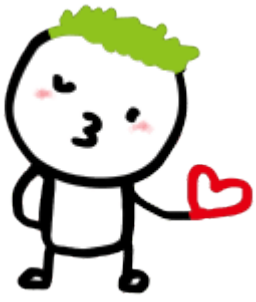
그리고 국내 영향(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을 한 곳에 결집할 수 있는 공간적인 플랫폼, 센터가 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져 신재생에너지가 더 이상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바뀌지 않고,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에 백 번 공감했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재정적 지원보다는 더 알맞은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그것 외에도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소부장(소재,부품,장치) 플랫폼 구축, 미국의 발전회사의 전략(폐기물까지 수거해가는 패키지) 등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었다.

위를 요약하자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기를 공공재가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그 가치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
계통망 확충(당장은 필요)과 기술적 해결방안은 효율성/경제성을 따져 투자를 선택,
국내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한 곳에 결집할 수 있는 공간적 플랫폼, 센터 개설,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부장 플랫폼 구축,,,

등등 전문가의 입장에서 단지 재정적인 지원금 형태가 아닌 정부에게 있어 무엇이 실제로 바라는 지 알 수 있어 굉장히 의미있는 강의였습니다!



[에너지전환 청년 프런티어 2기] -청년이 그린 Green New Deal(4)

에너지전환프런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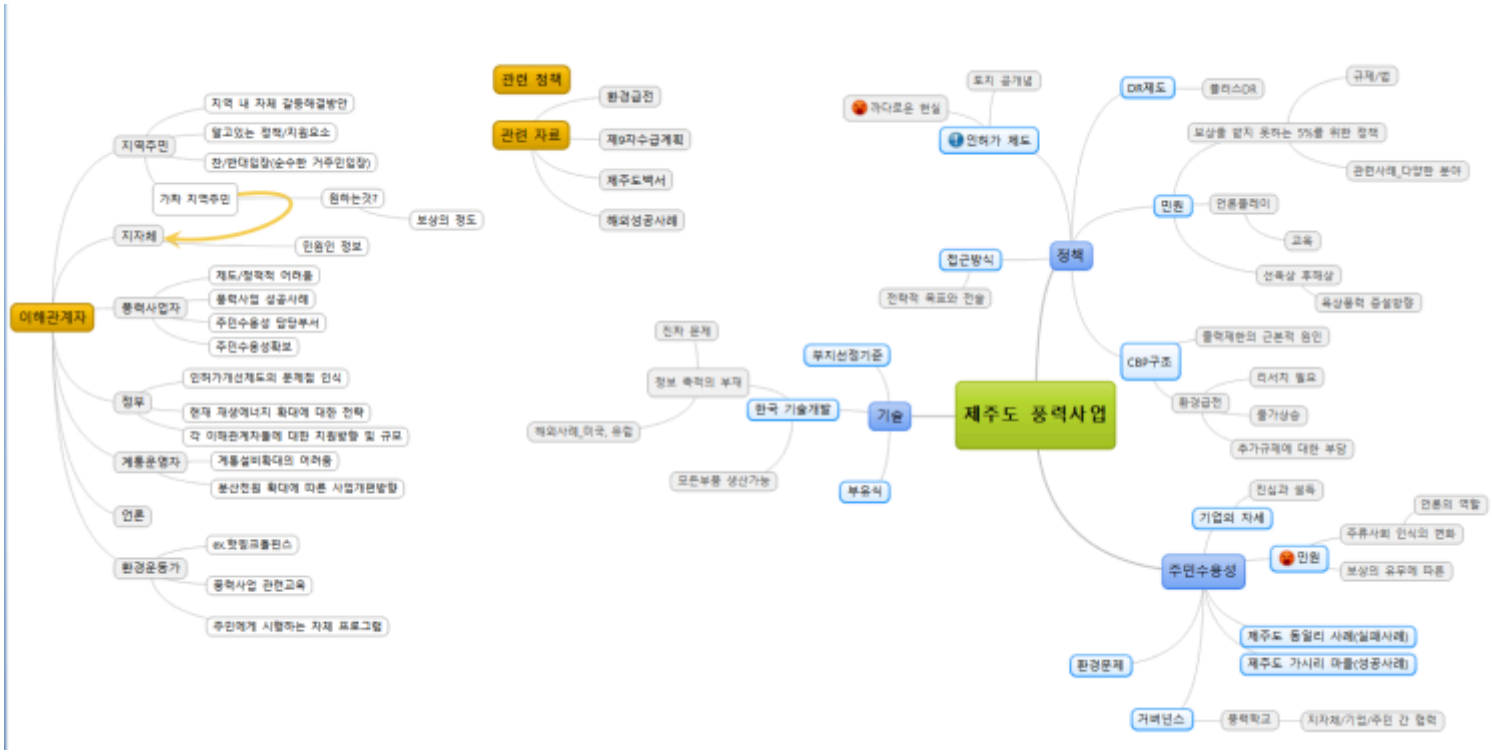
2021/01/19 14:43 http://blog.naver.com/tsje1019/222212482387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프런티어 #청년

다섯번째 날, 현장답사 준비와 그린위즈 전무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 parkminho, 출처 Pixab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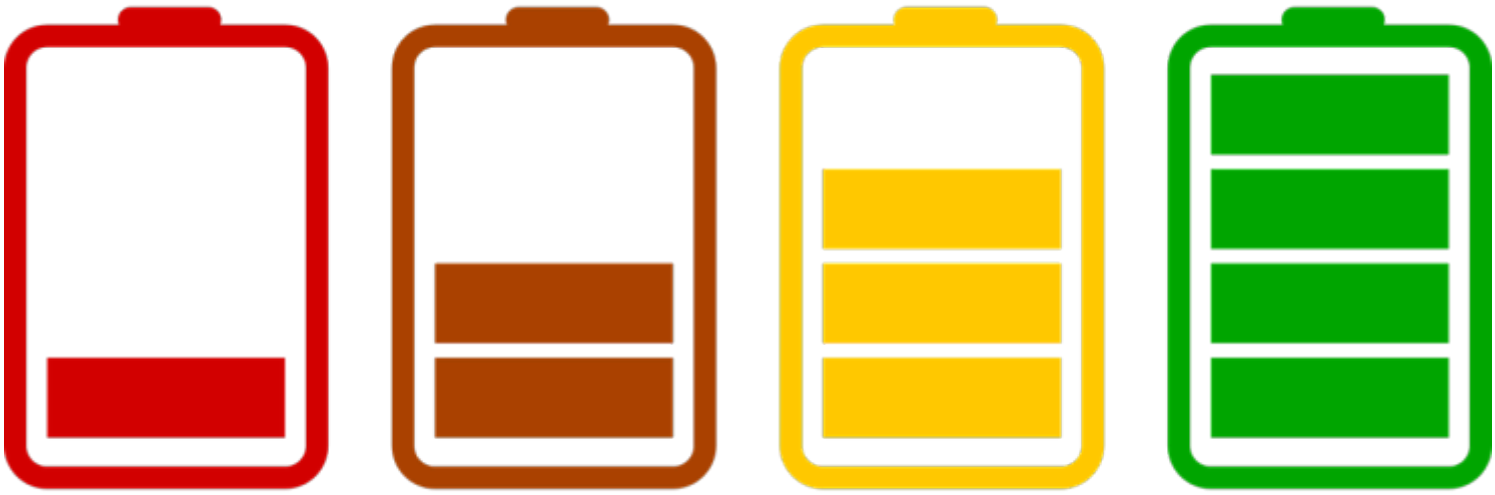
저희 팀은 크게 제주도 풍력사업을 주제로 활동에 임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주제를 선정하면 좋을 지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려보았습니다.



사실 모든 데스크 리서치 이전, 강의, 멘토님과의 만남 등을 통한

뒤죽박죽 갑작스레 쏟아지는 정보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제주도 풍력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풍력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정책 이렇게 큰 틀을 잡아놓고 세부를 고민할 당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michaljamro, 출처 Pixabay

그리고 그리드위즈 전무님의 강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배터리, 반도체 산업 등은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낮아지기에 늦게
진입하는 것이 더 쉬울 수는 있지만 /기술의 선두에 서서 신사업에 대해 개척하는 입장으로 비용은 많이 들지만 먼저 시작할수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술을 선두해나갈 기회로 생각하는
기업 오너의 두 관점에 따라 기업이 선택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안정성만이 아닌 혁신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섯번째 날, 문제정의 워크샵과 더불어 에너지분권과 금융의 역할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주말동안 많은 고민을 한 후 우리 조의 형태도 잡히고, 내부 조에서 주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편한 마음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었는데요
(일요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그래도 문제정의 워크샵을 통해서 각 분야별 문제,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하려니 엄청 어려웠습니다.
아마 추상적으로만 개념을 파악하고,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지 머릿속에서 세워지지 않았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충 생각해서는 절대 적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어요ㅠ
그리고 팀원들과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것 같습니다!!!!

강의를 통해 우선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에너지전환에 할 수 있는 역할,
에너지 분권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자세한 사례(독일, 오스트리아 등)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분권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독일과 차이점에는 독일의 경우 배전망 사업이 민간업자(여러 규율을 통한 공공의 이익 실현)가 하고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요
몇 년 전 한전 민영화한다고 했을 때 나라 경제 망한다고 주위사람들 모두가 반대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전기요금 오르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는데
관심있게 이것저것 알아보고, 많은 것을 배운 지금 시점에서 필수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는게 신기하고,
전기라는 것을 공공재로서 당연히 높은 품질, 낮은 가격으로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상품으로서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의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쥬!?

한국의 지자체의 에너지 분권 현황은 단지 5년마다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앙집권 명령(할당된 값)에 따라 이행하는 실행창구로서의 역할, 재생에너지 확대계획수립은 가능(근데 지역자체적인 예산이 적어서 사업을 할 예산확보가 어려움->재정적 여건이X)_지자체예산 중 에너지 투입비중 0.3%, 중앙정부의 예산은 산업부 자체 사업에만 관련(지자체에서의 사업은 예산X)